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브도끼아 수녀순교자

사순절 전 주일 / 용서 주일
(아담과 하와의 낙원에서 추방됨을
기억하는 주일)

- 성 에브도끼아 수녀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4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로마 13, 11-14, 4 / 봉독서 441
- 복음경: 마태오 6, 14-21 / 137. B 9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오후 ▷ '참회의 대만과'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브도끼아 수녀순교자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은 신성한 은총의 혁신적인 힘으로, 우리 교회에서 3월 1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에브도끼아 수녀순교자(†2세기)처럼 매일 많은 죄인들이 거룩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녀는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재산을 모두 지역 교회의 자선사업에 기증하면서 수도사의 길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업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을 쇠신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천 년 동안 교회는 옛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서, 오늘날 말하기를 영적 문화는 교회의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세상에는 그리스도교의 적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사업을 모방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것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수난 등 그리스도의 사업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활 때”(루가 20:33)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Ⅱ고린토 5:17)라는 사도의 말씀은 현실화됩니다.

참다운 회개는 통회와 참회를 동반해야 한다

회개란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한 후에 순간 미안해 하고, 잘못을 후회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하고 뉘우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잠시 잘못을 인식하고 후회하며 뉘우치고 고백성사를 하면 회개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바른 회개는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비탄하게 우리나라오는 통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를 할 때 참다운 회개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을 다하여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다.(마태오 3:2)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맞아들이기 위해 해야 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전도의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오 4:17)”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우리의 이기적인 과거의 삶을 통회와 참회로 청산하고 참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이러한 회개는 한 번이나 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하여야 하는 투쟁이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개 없이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사생활인 세례와 견진, 고백성사, 성체성혈성사에서 천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고백성사를 할 때 통회하는 마음 없이 회개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하다. 회개의 삶을 살아간 성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주님의 조상인 다윗 왕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저녁마다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이집트 성녀 마리아도 젊은 시절에 살던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홀로 삼십여 년간을 참회와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을 부인한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회개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네로황제의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하던 중 베드로를 대신하여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피신하던 길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다. 우리는 혼자서 살던, 여

☞ 3면으로 계속

교회 내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응 방법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전파되어, 최근에는 전국으로 매우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모든 예배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 큰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주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교인들께서는 성당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찬예배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당에 들어올 때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로 인사할 때 악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성직자 손에 입 맞추지 않도록 합니다.
5. 성화에 경배할 때는 입은 맞추지 않고 고개만 숙이도록 합니다.
6. 예배서는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7. 안디도로는 성당 출구에서 각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주일 성찬예배 후에 사랑의 오찬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9. 신자들과 예비신자들을 위한 모든 교회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정교인들은 자애로우신 주님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하루 빨리 사라지도록 겸손한 자세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보여주셔서 이 심각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도록 합시다.



☞ 2면에서 계속

벗이 함께 살던, 죄악도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곁을 항상 따라다니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렬한 회개를 하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소 식

대교구

■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오늘 주일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대사순절 시작**

내일 3월 2일 정결 월요일부터 대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 기간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을 절제하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와 예배 참여를 통하여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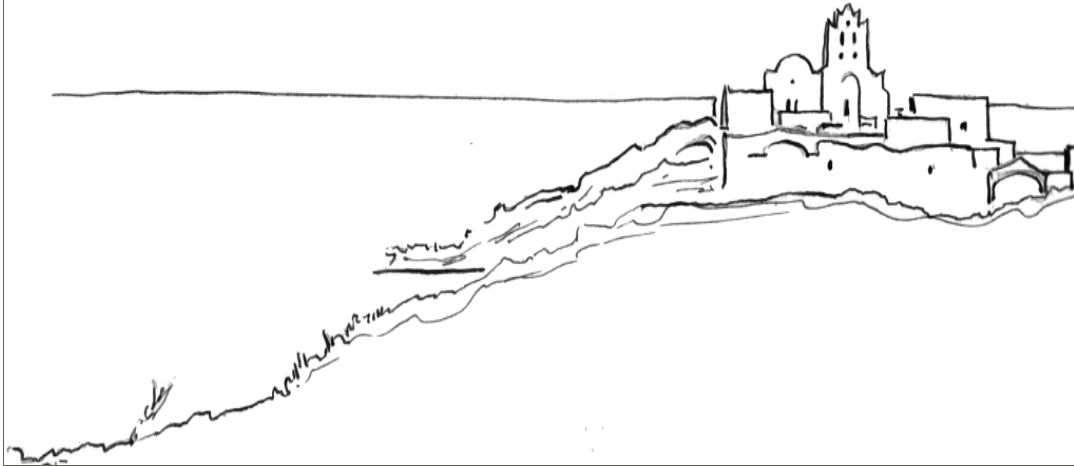
■ **정교 주일 성화 준비**

다음 주일(3월 8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화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성화를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4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6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 (제1스타시스)